



뉴스레터

2026년 1/2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서



**뉴스레터
36호(1/2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연구서 발간	09
3. 교수진 연구활동	18
4. 한반도 정세분석	24
5. IFES 브리프 / 포럼	26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32
2. 언론 속의 IFES	35
3. IFES 도서관	37
4. 예정사항	40
5. 안내사항	41

연구활동

학술활동

연구서 발간

교수진 연구활동

한반도 정세분석

IFES 브리프 / 포럼

1. 학술활동

가.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KDCI-IFES Young Professionals Seminar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6일(토)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북아지역 질서 전환 하 한중협력’을 주제로 국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 간 학술교류를 심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차원의 평화와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장운령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한헌동 중국 정법대 교수,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이경사 인민대 교수, 첨덕빈 상해대외경무대 교수 등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상범 북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한 본 회의는 2개 세션, 13개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장운령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과 공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중 사이 미지근한 온도를 열기로 바꾸려면 동북아 신질서 논의 속에서 한중 협력이 가야할 방향을 보다 실천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동북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학술 교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단기적 현안 논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지역 협력 구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중관계 ▲북러 관계 강화와 한반도 정세변화 ▲새로운 지역 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한중협력의 현실적 방향과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향후에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간의 지속적인 학술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나. 일본 국제정치학자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0일(수) 오후 3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 및 일본 내 국제정치 연구학자들이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니시노 준야(NISHINO Junya) 소장, 이상하(LEE Sangha) 연구원, 도쿄대학교 다케미 아야코(TAKEMI Ayako) 부교수, 미야자키 아야(MIYAZAKI Aya) 프로젝트 부교수, 아이치가쿠인대학교 오사와 스구루(OSAWA Suguru) 부교수, 도요대학교 야마자키 아마네(YAMAZAKI Amane) 부교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구와하라 고쿄(KUWAHARA Kyoko) 연구펠로우, 케임브리지대학교 가토 도모히로(KATO Tomohiro) 방문학자, 와세다대학교 하라다 메리사(HARADA Merisa) 연구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진구 일본연구센터장은 최근의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해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진구 교수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비춰 협력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일관계의 가시 같은 존재인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2기 정권의 국가안보전략과 미중관계, 최근 악화하고 있는 중일관계, 미일관계, 대만해협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다. 제76차 통일전략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1일(목) 오후 2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격동의 전환기,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를 주제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4개 소주제로 나누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및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제1주제 ‘남북관계 진단: 두 국가론과 통일담론’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와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적대성’의 3가지 조건(흡수통일 포기·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중단·비핵화 언급 금지)을 제시해 남북관계 재개가 높은 문턱 위에서 구조화됐다고 진단하며, ‘주권행사영역’ 설정이 서해(NLL)에서 국경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고하고 평화공존 제도화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김상범 교수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화·타협의 중간지대를 지워 대결을 고착화하는 권력전략이라면, 한국은 국익 기반의 주도적 위기관리와 중국 레버리지 강화, ‘이익 기반’ 통일담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미·중 전략경쟁의 재편과 공급망 지각변동’은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의 주제 발표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한진 초빙교수는 경쟁을 무역갈등이 아닌 기술·표준·공급망을 통한 ‘상호억제’의 제도화로 보고, EDA·EUV·CoWoS·HBM 등 반도체/AI 공급망의 단일 실패점(SPF)이 안보 인프라 리스크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대응은 ‘전망’이 아니라 ‘설계’라며 2026년을 3×3 시나리오와 15개 전환신호(조기경보)로 상시 관리하고, 산업·통상·기술·외교·안보를 동시조정하는 ‘전 시나리오’ 전략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이에 양평섭 초청연구위원은 시스템 충돌 속 현실이 small deal 반복과 민감기술 축의 전략적 디커플링 고착으로 흐른다고 평가했다. 해법으로는 ‘안미경세’ 전환과 레드/옐로/그린 박스 협력관리, FTA 업그레이드 등으로 한국의 결정적 레버리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제3주제 ‘북·중 관계 복원과 북·중·러 밀착’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두진호 센터장은 2025년 9월 3일 김정은의 전승절 방중을 2019년 이후 북·중 관계 복원 신호로 평가했으나, 이를 북·중·러 3각 동맹 제도화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경계했다. 세 나라는 정체성·제도·리더십이 결합된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국은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협상력 확보, 중국은 러시아 쏠림 견제, 러시아는 외교공간 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숙 교수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경제협력 요소, 위협인식 차이, 북·중과 북·러 조약 간 충돌 가능성, 북·중 안보협력의 제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언급 부재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성급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학술활동

제4주제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의 핵문제’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0을 19세기식 강대국 정치로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포스트 패권 환경 속에서 북핵이 미국의 최우선 의제가 아닌 만큼 한국의 주도적 억지와 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ND 구상 역시 핵위협 관리와 점진적 비핵화라는 현실적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재욱 교수는 핵잠 승인을 정치적 신호로 평가하며, 10년 소요 기간, 정권 교체, 원자력협정 개정, 건조지 문제 등 실현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잠이 역내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보유 자체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격동의 전환기 속에서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화의 방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였다”며, “남북관계와 통일담론,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변화, 북·중 관계 복원과 북·중·러 협력, 트럼프 2.0시대의 핵문제 등 핵심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라.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리즈3: 퓨처테크 혁신과 북한경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북한연구학회, 북한정책포럼, 김건·김준형·박선원 국회의원실은 12월 19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북한연구학회 동계 학술대회 Session 3 「퓨처테크 혁신과 북한경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중호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개의 주제 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발표자로는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과 남진욱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지정토론에는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슬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퓨처테크 기반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북한경제 회복 국면이 군수 및 중화학 중심의 제한적 회복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위성자료 활용의 한계와 향후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마.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리즈4: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30일 오후 2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 시리즈 4: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안보·경제·인도적 위기가 결합된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매개로 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세미나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前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권태면 한미의원연맹 사무총장(前외교부 코스타리카 대사), 이정희 중앙대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발표자, 지정 토론자 등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연철 대사가 기조발표를 맡았고, 오삼언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위원, 정세희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선슬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최효정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위원, 윤세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약영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재조명하고, 남북 협력을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공동 위험 관리와 회복력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산림, 재난, 에너지 분야에서 실행 가능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다자 협력과 제도 기반 협력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미가 크다.



2. 연구서 발간

가. 단행본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41

동북아지역 질서 전환과 한중협력 (2025. 12. 22.)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 다층적 변화를 거치며 기존의 미국 중심 규칙기반 질서에서 다극·연계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압력과 지경학적 제약이 교차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향후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성의 확보는 주변국과의 균형적·전략적 협력 체계 재구축에 달려 있다.

본 연구서는 한국어-중국어 합본 연구서로, 동북아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재설계와 한반도 평화구축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문화·규범질서·대륙정책, 한국의 외교전략과 남북관계, 유라시아 협력 구조를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중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을 모색한다.

목 차

- 신유가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평화공존의 길 모색
-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출현과 한중러 3국 협력 필요성
- 정재홍(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트럼프 충격이 동북아 질서에 초래한 영향과 한중 관계
- 김동찬(연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 이재명 정부 하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
-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북한연구센터장)
- 한국-중국, 그리고 조선의 3각 연계 체제의 구축 가능성 모색: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와 남·북·중 선순환 협력 관계의 모색
-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최근 한중관계의 구조적 제약과 협력 방향
- 오현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AI시대 한반도 미래 전략 (2025. 12. 24.)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제 질서, 국가안보, 경제구조 등 전통적 전략 환경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기존의 지정학·지경학적 구도를 재편하며, 국가 간 경쟁의 중심을 군사력이나 자원에서 기술 역량으로 전환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과 분단이라는 고유한 안보 현실을 동시에 안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서는 인공지능(AI)아카데미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기술이 국제 질서와 국가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정치적 조건에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한반도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기술 협력의 잠재적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관점과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목 차

-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사회의 미래
 - 류현정(조선비즈 편집국 콘텐츠전략팀 부장)
- AI시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미래 산업: 기술 격변기의 전략적 대응
 - 신창환(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 인공지능과 전쟁, 안보의 미래
 - 설인효(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 AI 시대 중견국 전략과 한반도
 - 김상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북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 현황 분석: 2021~2025년의 북한 뉴스매체를 중심으로
 -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 AI 주도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협력과 기술평화 구상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인공지능(AI) 시대 남북관계 연구·분석의 새로운 도전
 -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42

대전환기 한반도 평화전략 구상 (2026. 1. 21.)



오늘날 국제질서는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퇴조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대국 정치로 귀환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서는 이러한 복합 위기의 대전환기 속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현장 경험을 가지면서도 학문적으로도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진이 집필한 제언서이다. 본서는 급변하는 4강 외교의 파고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新)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목 차

- 격변의 국제 질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 안호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주미대사)
- 위기의 동북아,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 신봉길(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 대일(對日) 투트랙 외교의 성찰과 과제
 -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주일대사)
- 북·중·러 삼각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박노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주러시아대사)
- 북한의 대남정책 변천과 두 개 국가론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전 통일부 차관)
- 한국의 대북정책 성찰과 과제
 -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통일부 차관)
- 한반도 평화 경제의 과제와 전망
 - 김연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 기정학(技政學)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
 - 조병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 동아시아 군사적 대립 구도와 지역분쟁
 -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
-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과 지역안보: 전작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서주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국방부 차관)
- 북·중, 북·러 접경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와 전망
 - 안병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북한경제포럼 회장)

IFES연구보고서
2026-01



『평화안전법제』와 집단적자위권 (2026. 1. 27.)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일본연구센터장)

이 보고서는 2014년 일본 정부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평화안보법제를 제정한 과정을 전후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중대한 전환으로 평가한다. 특히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일본의 안보정책과 헌법 제9조 해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본 국내에서 촉발한 입헌주의 논쟁과 안보 현실론 간의 대립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상호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202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전략적 인식 공유와 협력 강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양국이 공통의 안보 인식을 토대로 독자적인 전략목표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포함한 실질적 협력 채널의 활용 가능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목 차

- I. 평화안전법제 10년
- II. 평화안전법제 이전의 집단적자위권 해석
- III. 아베의 집념과 한정적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 IV. 평화안전법제 의 주요 내용
- V. 국회 심의에서의 쟁점
- VI. 대만유사와 미일 관계
- VII. 한미일 협력과 대만유사,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IFES연구보고서
2026-02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전략적 변주(變奏): 독일 사례 비교 검토 (2026. 1. 30.)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북핵연구센터장)



독일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러시아와 점차 거리를 두는 미국이라는 ‘보호자’(patron)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는 처지이다. 독일은 그러나 자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의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다. 실제 독일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보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필요한 조건처럼 보인다. 이처럼 현재 독일이 직면한 과제는 불가피한 것과 바람직한 것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 미국의 지배력이 줄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재구성된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독일은 핵을 포함해서 자강(自強)함으로써 균형 잡힌 나토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인들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지 않으며, 비확산 이해가 여전히 공고하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철수하지 않는 한, 독일식 확장억제는 단번에 구축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단적 재래식 역량과 유럽 통합 고유의 성격을 기반으로 한 유럽 자위(自衛) 연합의 형성을 완성하는 정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 사례로부터 한국이 취할 전략적 교훈은 (1)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통해 ‘안심의 95%’를 채우되, (2) 핵 잠재력 담론이 외부에서 지표로 인식될 위험을 관리하고, (3) 재래식 역량을 동맹 유지의 비용이 아니라 주권의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4) 최후의 옵션을 논하더라도 그것이 확산 연쇄를 촉발하지 않도록 외교·법·산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독일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한국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하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인 ‘동맹 의존과 자율의 균형을 어떤 제도와 역량의 조합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목 차

- I. 서론: 문제 제기
- II. 독일의 반핵 정서에 대한 탐구
- III. 결론
- 참고문헌

2. 연구서 발간

나.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9, NO. 4, FALL, 2025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출판부가 협력하여 『Asian Persprctive』 제49권 제4호(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본 호는 Project Muse(<https://muse.jhu.edu/issue/55960>)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본 호에는 동남아시아-중동 관계 특별호 제2부가 수록되었다. 본 특별호는 중동-동남아시아 상호작용에서 '초지역주의'와 '새로운 양자주의'의 개념적·실무적 상호보완성을 검토하며, 어떻게 유연하고 사안별 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지역 행위자들이—터키, 말레이시아—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정기 투고 논문에는 베트남의 기후 적응 정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대만의 민주주의, 대북 유엔 제재를 둘러싼 전략적·규범적 쟁점, 그리고 북한 노동시장에서의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을 논의한 글들이 수록되었다. '도서 심포지엄'에서는 데이비드 M. 맥코트(David M. McCourt)의 『관여의 종말: 미국의 중국·러시아 전문가들과 1989년 이후 미국 전략』(Oxford University Press, 2024)에 대한 서평과 반응을 소개한다.

『ASIAN PERSPECTIVE』 VOL. 49, No. 4, FALL, 2025 목차

Special Issue on Southeast Asia–Middle East Relations – Part 2

Türkiye and Southeast Asia Relations:

Quasi–Transregionalism Through Humanitarian Aid and Education

Hatice Çelik and Yusuf Avcı

Reclaiming Peace: Malaysia’s Global Strategy to Combat Islamophobia

Abdul Razak Ahmad and Zikri Rosli

Malaysia’s Foreign Policy Towards Palestine in the Post–Independence Era:

An Assessment of Evolving Positions in the Barisan Nasional Government

Muslim Imran

Vietnam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Vietnamese Climate Adaptation:

The Case of Dyke Policies in Ca Mau Province

Nguyen Minh Quang, James Borton, and Wil Hout

Territorial Disputes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CS and Taiwan’s Democracy Dividends

Serafettin Yilmaz and Fu–Kuo Liu

A Study on China–Myanmar Complex Interdependence Based on 503

Night–time Light

Xiongguan Zhu, Lili Tan, and Wanshu Li

North Korea

Whose Economic Pain for What Security Gain?

The Strategic and Normative Concerns Surrounding th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Dong Jin Kim, Luca Cusieme, and Eunsuk Hong

From Coercive Distribution to Material Co–optation:

Changing Mechanisms of Political Control in North Korea’s Labor Market

Peter Ward, Andrei Lankov, and Jiyoung Kim

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David M. McCourt. 2024. The End of Engagement:

America’s China and Russia Experts and US Strategy Since 19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 A. Kapp, Franziska Barbara Keller, David M. McCourt

2. 연구서 발간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4호 2025년 (겨울) 통권 131호 (2025. 12. 31.)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1권 제4호 2025년 (겨울) 통권 131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 차

-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 정재욱(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공격적 현실주의의 확장과 북한의 하이퍼전략: 비강대국의 공세정책 동인 추적
- 반길주(국립외교원)
- 조선인민군 군관이하 군사칭호 도입에 관한 연구: 1948년 창설부터 한국전쟁 및 1955년까지
- 이성춘(동국대학교)
-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황소희(연세대학교)
-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정상순(건양대학교)·지효근(건양대학교)
- 한국전쟁이 출범 초기 NATO의 군사체제 확립에 미친 영향
- 임해용(성신여자대학교)
- 수평적 문책성과 민주주의 진동: 한국 사례의 비교 연구
-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 『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제4호 주요 내용 >

정재욱 연구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을 다룬다. 북한의 핵선제 사용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작동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게임 모델을 활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을 분석하였다.

반길주 연구자는 세력 재배분으로 불안정과 모호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특정자산을 보유한 비강대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그 자산을 공세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성되는 것이 ‘확장형 공격적 현실주의’ 부상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춘 연구자는 조선인민군의 군관이하 하사관과 병사에 대한 군사칭호 연구가 거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인민군 창설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55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군관이하 군사칭호 도입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향후 군관 이하 군사칭호 변천사와 수여 기준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부 공식 문헌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황소희 연구자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통일·평화 담론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간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전환될 점을 주장한다.

정상순·지효근 연구자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속력에 대한 국민 인식, 위협 인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정치성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ARIMAX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임해용 연구자는 한국전쟁이 국제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의 군사화에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서 냉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한국전쟁의 발발에서 휴전, 그 이후의 세계사의 전개를 보면 한국전쟁에 냉전의 논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 연구자는 한국의 수평적 문책성을 법제적 제도 설계와 실제적 작동 성과라는 두 차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파 민주화 국가들과의 비교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분석 결과, 한국 민주주의의 수평적 문책성은 법제적으로 과도한 제도적 편향 없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설계된, 비교적 최적화된 권력분립·견제균형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
 - 일자/장소: 2025. 12. 6.(토) /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회의실
 - 내용: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 2) 민주평통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 2025년 4분기 회의 발제
 - 일자/장소: 2025. 12. 12.(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층 회의실
 - 내용: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평화통일정책 과제
- 3) SSCI 국제학술지 <Pacific Focus> 논문 등재
 - 일자: 2025. 12. 1.(월)
 - 제목: Opening Pandora's Box: Is South Korea's Nuclearization Feasible and Desirable?

< Opening Pandora's Box: Is South Korea's Nuclearization Feasible and Desirable? >

The nuclear armament debate has become prominent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litics, driven by security concern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he Trump 2.0 Presidency has further heightened the debate, with advocates claiming strategic opportunities and necessities for South Korea's nuclear independ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debate, evaluating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nuclear armament. The article argues that technological, diplomatic,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pose obstacles to current feasibility. Even if such obstacles are mitigated, nuclear armament has limited security benefits and negative trade-offs, limiting its desirability as a long-term

strategic solution.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offering a critical yet holistic perspective on the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nuclearization, urging policymakers, and the public not to view nuclear weapons as a panacea, but rather to weigh their risks and benefits alongside alternative security approaches.

- 4) 한국수출입은행 논문 등재(수은북한경제 2025 겨울호)
 - 일자: 2025. 12. 31.(수)
 - 제목: 새로운 대북 개발협력 구상: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SDGs와의 연계

〈새로운 대북 개발협력 구상: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SDGs와의 연계〉

북한이 전례 없이 국력을 총동원해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 시대 들어 가장 주목을 받는 국정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공업공장, 온실 농장, 현대식 살림집, 종합병원, 학교, 종합편의시설 등을 전면 건설하려는 이 계획은 단순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지방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재구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 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기존의 모든 경제개발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별적 성격과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들을 긍정과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방발전정책이 SDGs와 얼마나 정합성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실질적으로 “북한판 국가 SDGs 실행계획”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국제 규범과 맞물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와 도전과제도 냉정히 진단하였다.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북 개발협력 추진 방향으로 본고는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와 SDGs의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SDGs와의 연계, 데이터 공유와 SDGs와의 연계, 에너지 지원과 SDGs와의 연계, AI 기술 지원과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고, 결론에서는 북한의 지방발전계획과 SDGs 연계의 필요성, 중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SDGs라는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대북 개발협력을 선제적으로 재구상하는 것은, 협력이 재개되는 순간 신속하고 정당성 있는 개입을 가능케하는 전략적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영준 교수

-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안보전문가 양성과정 강의
 - 일자/장소: 2025. 12. 1.(월)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내용: 북한 국가(지방) 기구와 정보기관

김상범 교수

- 1) 2025 남북 평화 · 발전 · 인권 연계 국제회의
 - 일자/장소: 2025. 12. 9.(화) /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 발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도전과 과제

3. 교수진 연구활동

2) 제21차 남북농업전문가 워크숍: 변화하는 한반도와 남북농업협력

- 일자: 2025. 12. 18.(목)

- 발표: 2국가론 이후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

3)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 일자/장소: 2025. 12. 19.(금) / 국회의원회관

- 토론: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정치분야의 주요 변화와 향후 전망

정재욱 교수

1) 한국과 국제정치 논문 등재(제41권 4호, 2025 겨울)

- 일자: 2025. 12. 31.(수)

- 제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작동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게임 모델을 활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균형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첫째,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로, 북한의 핵반격 능력의 신장으로 미국의 대내외 청중비용을 압도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확실하거나,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할 때이다, 둘째, 확장억제의 작동 여부가 북한에 불확실한 경우로, 이때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이득과 미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가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비교정태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선제공격의 이득이 보복의 피해를 능가할 경우에만 선제공격의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 북한의 이득이 피해를 능가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생존을 위한 억제' 목적의 공격 정도가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핵 강압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만 초빙교수

- 1)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
 - 일자/장소: 2025. 12. 6.(토) /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회의실
 - 내용: 신유가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평화공존의 모색
- 2) 산동대 동북아학원 전문가 특강
 - 일자: 2025. 12. 8.(월)
 - 내용: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CPTTP와 RCEP 비교분석
- 3) 산동재경대학 국제무역학원 전문가 특강
 - 일자: 2025. 12. 8.(월)
 - 내용: CPTTP와 RCEP의 비교분석: 한중FTA 2단계 협상 전망
- 4) 산동재경대학 중일한 연구원 RCEP세미나 발표
 - 일자: 2025. 12. 8.(월)
 - 내용: RCEP협정전망과 한중일문명교류의 길

전령현 초빙교수

- 1)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대회(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 일자: 2025. 12. 12.(금)
 - 토론: 북한의 무역금융 법제연구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2025 남북 평화 · 발전 · 인권 연계 국제회의 사회
 - 일자/장소: 2025. 12. 9.(화) /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
 - 내용: 한반도 안보·교류·인권 세미나의 안보 세션을 주재하면서 EU,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표들이 인식하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유도하고 정리

3. 교수진 연구활동

2) 한국외교협회 ‘외교’ 기고

- 일자: 2026. 1. 7.(수)

- 내용: ‘외교’ 지 신년 특집호에 “미국의 변화: 한국의 딜레마” 제하의 기고를 통하여 미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이외의 다른 옵션을 갖기 어려운 딜레마를 인식하고 자강과 연대를 양대 축으로 전력 대응해야 함을 강조

3) 외교협회 학술 포럼 주제 발표

- 일자/장소: 2026. 1. 28.(수) / 최중현 학술 연구원

- 내용: “한미 동맹, 한·미·일 관계, 미·북 관계 현황과 전망” 주제의 학술 포럼에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발표. 미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이외의 다른 옵션을 갖기 어려운 딜레마를 인식하고 자강과 연대를 양대 축으로 전력 대응해야 함을 강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한중비전포럼24 토론

- 일자/장소: 2026. 1. 9.(금) / 서울 HSBS 빌딩

- 내용: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의 고민은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이어졌다. 또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임을 인정한다. 중국이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KBS 남북의 창 인터뷰

- [지금 북한은] 외국인에 비친 ‘관광지 평양’ (2025년 12월 1일, 월)

- [클로즈업 북한] 파격적인 김주애 부각 (2026년 1월 3일, 토)

2) MBC 통일전망대 인터뷰

- 북한 여자축구 전성시대... '거리 응원' 공개 이유는? (2025년 12월 1일, 월)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기고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증가... 규제 당국 대응 강화 (2025년 12월 26일, 금)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1226131515655>

이상만 초빙교수

1) 중국망 칼럼기고

-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한국의 선택 (2025년 12월 16일, 화)

* (기고문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12/16/content_118230586.html

- 중국경제 5% 성장 시대, 한중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 전환 필요성 부각 (2026년 1월 23일, 금)

* (기고문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6-01/23/content_118296116.html

2) 글로벌 타임즈 인터뷰

- S.Korea's President Lee stresses importance of bilateral ties, reaffirms one-China stance on Taiwan ahead of China visit (2026년 1월 3일, 토)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시사저널 특별기고

- [특별 기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만 발언 '보복' 넘어 '예방적 견제' 차원 (2026년 1월 17일, 토)

* (기고문 전문)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94>

4. 한반도 정세분석

Implications of a Compromised and Mutually Tolerated Dissonance

2025. 12. 12. Jehun Lee[Adjunct Professor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After APEC Breakthrough, How South Korea Can Achieve Its Nuclear Submarine Ambitions

2025. 12. 12. Hackyoung Bae[Professor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Tructure of Lee Jae Myung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Future Tasks

2025. 12. 16. Cheol-wun Jang[Research Fellow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Status of Chinese Inbound Tourism to South Korea and Proposals for Its Sustainable Revitalization

2025. 12. 16. Hyoungjong Kim[Associate Research Fellow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South Korea-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

2026. 1. 8. Yu-hwan Koh[Professor Emeritus of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Dream of Self-reliant defense-Not a “Nuclear-armed Submarine” but an “Atomic-powered submarine

2026. 1. 8. Yong Hoon Jang[Adjunct Professor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Tasks for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Centered on Building a Structure of Mutual Benefi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026. 1. 19. Haejung Lee[Director of the Center on Economic Studies of Unification / Hyundai Research Institute]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Full Rest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Ways to Enhance Affinity

2026. 1. 22. Gyubeom Kim[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4건)

IFES 브리프(요약)

MAGA의 대러 인식과 미·러 관계 재편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2025. 12. 26. 이태림 전 국립외교원 교수

2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유럽 파트는 유럽연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 반면,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나토의 확장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대유럽·대러 관계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예고했다. 또한, 미국의 유럽 우파 지원 시사는 러시아에 유리한 대외환경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MAGA의 세계관과 우파 진영 내 오래전부터 확산되어 온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MAGA의 반글로벌주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적이 아니며, 기독교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이를 앞서 실현한 “문명적 동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우파 내 대러 인식 변화는 미·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미·러 관계가 안정화될 경우, 이는 한층 복잡해진 대북 문제에 새로운 접근로를 열어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2026년 외교·안보 이슈와 전망

2026. 1. 6. 정재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년은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세계와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주요 대외 변수는 미국 중간선거와 대외정책의 불확실성, 거래 중심주의와 강대국 정치, 지정학적 충돌의 만성화 등이다. 첫째, 미·중 간선거에서는 공화당 상원 수석-민주당 하원 장악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상·하원 교착(Gridlock)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둘째, 가치보다는 이익을 앞세운 거래 중심주의와 강대국 정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셋째, 지정학적 충돌이 만성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는 우리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 의제로 던질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 문제 연루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핵 군비통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미·중 기술경쟁 심화와 경제 안보다. 미국의 ‘기술동맹’ 참여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압박에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구축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6년 전략적 분수령에 서서 한미동맹과 자강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외교·안보 전략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IFES 브리프(요약)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노선의 구조와 리스크

2026. 1. 22.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은 한층 더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어진 콜롬비아-쿠바-멕시코에 대한 경고,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 그리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이익이라 판단할 경우 기존의 외교적 금기와 동맹 질서조차 주저 없이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이 천명한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사후관리와 동맹 관리에 대한 체계적 고민의 부재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의 구체적 계획 없이 국정 ‘운영’을 선언했고, 이란에서는 군사 옵션을 시사했다가 명확한 전략 없이 보류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에서는 기존 조약과 NATO 체제를 통한 관리 가능성을 외면한 채 ‘소유’의 언어로 유럽 동맹국들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했다. 이는 절제·균형·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의 책임 윤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이며, 외교를 장기적 질서 관리가 아닌 단기적 힘의 연출과 정치적 성취의 무대로 인식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성과 평가: 합의와 전망

2026. 1. 30.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연구실장

지난 5년간 북한 경제 운용의 핵심 기조는 ‘정비·보강 전략’을 통한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금속과 화학공업을 경제 전반의 연쇄 상승을 견인할 ‘중심 고리’로 설정하고, 주체철 생산 체계와 C1 화학공업의 완성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내부 순환형 구조를 구축했다고 강변한다. 특히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형 압축기 제작 사례에서 보듯, 수입 의존성(수입병)을 탈피하고 기술적 자생력을 확보한 것을 이번 5개년 계획의 가장 유의미한 질적 변화이자 '자력갱생의 실체화'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는 '시각적 전변과 식량 안보의 토대 구축'이 두드러진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단순한 주거지 공급을 넘어 수도의 전략적 기능을 격상시킨 '건설의 대번영기'로 평가되며, 이는 체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과학농사 제일주의와 벼·밀 중심의 알곡 생산 구조 개편을 통해 기상 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궤도에 진입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평의 저변에는 극한의 고립 상황을 오히려 자립의 기회로 전환했다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지도부의 영도적 무결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성과 강조는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수세적 정비'를 넘어 '공격적 도약'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8차 대회가 경제의 하부 구조를 다지는 '기초 공사'의 시기였다면, 9차 대회에서는 이를 발판 삼아 "전면적 국가 부흥의 도약기" 혹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총진군"과 같은 한층 과감한 슬로건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전면적 안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차기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2건)

IFES 포럼

Rethinking the North Korea Question: A Theoretically Grounded, Institutionally Coordinated, and Ideologically Oriented Strategy for Long-Term Stability

2026. 1. 7. Walter Klitz Dr. h.c. Kyungnam University / former Director of the Friedrich-Naumann-Foundation for North and South Korea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

Strategic Implications of Adjusting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for Renewing Inter-Korean Dialogue in 2026

2026. 1. 16. Tae-Hwan Kwak, Ph.D.[Professor Emeritu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이봉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5. 12. 1. ~ 2026. 11. 30). / 현 통일부 한독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나. 한반도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2월 17일(수),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미래과제'를 주제로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차세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이관세 소장, 선슬기 초빙연구위원, 박준혜, 오현주 연구위원(이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민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문서진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대표 등 총 15인의 신진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두 개 국가론의 점진적 발전 과정과 비핵화 담론 재검토, 러·우 전쟁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실전 경험 분석, 북한 원전 자료 직접 독해의 중요성, 통일부 자료 개방 확대, 청년세대 맞춤형 연구 방법론 등을 논의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는 향후에도 북한·통일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 202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 수료자 신년 오찬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6일(화), 202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 수료자 신년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소가 2020~2024년 추진한 펠로십 프로그램 수료자들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학술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펠로십 사업은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으로, 2024~2024년 펠로십 과정에서 총 10개국 37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관세 소장과 김상범 교수, 강윤희(이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비롯해 김연희 서강대 게페르트국제학부 강사, 나가사와 유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안드레이 코브시 KDI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양만봉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엄파벨 중부대 조교수, 전령현 로고스 변호사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연구서 발간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수료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하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구소 행사 홍보 및 향후 학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라. 202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026년 1월 27일(화)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2026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초빙교수·초빙연구위원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김선헌 학교법인 심연학원 이사장,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3명(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이수훈 전 주일대사,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초빙교수 5명(박노벽 전 주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조코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조교수, 전령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이상만 산동대 객좌교수), 초빙연구위원 12명(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권금상 북한대학원대 객원연구위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김영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선술기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연구실장, 안병민 통일경제포럼 회장, 이동운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정재용 전 연합뉴스 선임기자,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법학교수, 이봉기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관세 소장은 ‘2025년 주요사업 실적 및 2026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연구소의 중점사업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소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이어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최근 정세 평가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주제로, 올해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점까지를 한반도 평화 전환의 적기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 기간을 활용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 언론 속의 IFES

가.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신년사 (2026. 1. 9.)

대한뉴스에서 2026년 1월 9일(금) 박재규 경남대 총장 신년사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AI 시대를 넘어서는 힘, 다시 ‘사람’을 향하다.”



2026년 새 아침이 밝았다. 매년 마주하는 새해지만 올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사회 전반에 쌓여 가는 불신과 갈등까지 우리를 둘러싼 파고가 매우 높다. 질풍경초(疾風勁草)라 하였다. 거센 바람이 불때야 비로소 강한 풀을 알아본다. 지금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이 가진 진정한 저력을 증명할 때임을 의미한다. 대학은 이제 변화에 휩쓸리는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에 서서 시대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은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자산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기능적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역할이 요구된다. 대학이 흔들리면 지역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이 방향을 잃으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진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취업률이나 당장의 성과 지표에만 매몰된 교육으로는 급변하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정답을 빨리 찾는 기술이 아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성찰하여 공동체를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이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기술을 다루는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켜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2. 언론 속의 IFES

지역 대학의 역할 또한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과 대학이 하나가 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지역의 문제를 내 일처럼 고민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을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하며 도전하는 환경은 대학 혼자서도, 지역사회 혼자서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상호 협력과 연대만이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교육계 내부의 연대 역시 중요하다. 대학 간의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세대 간 단절은 교육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제는 한 대학의 성과가 아니라 교육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대학,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교육은 희망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대학이 먼저 책임을 자처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우리 모두 한배를 타고 거친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힘,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새로운 해답이다.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6차 통일전략포럼 언론 보도 (2025. 12. 11.)

연합뉴스, JTBC,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 17개 국내 언론사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2025년 12월 11일(목) 진행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푸틴 최측근 쇼이구, 사망한 북한 대사 후임으로 거론”



(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제3차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7일(수)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북한 특수자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통일 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3차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IFES-UNKS 홍보영상 시청 ▲북한 특강(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참석자 질의·응답 ▲북한 특수자료실 및 디지털아카이브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특강에서 양문수 교수는 '자료로 읽는 북한경제'를 주제로, ▲경제 분야 북한 자료의 특성 ▲용어의 북한적 의미와 북한적 맥락에서의 해석 ▲자본주의 특정 시스템과의 상이성 강조 및 개혁적 성격에

3. IFES 도서관

대한 강한 부정 ▲특정 주제(또는 정책)를 여러 공식 문헌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번 행사는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자와 학생들이 북한 자료를 해석하는 관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신착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중 중 신착 도서 3종을 입수하였다.

< 주요 신간 도서 목록 >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로동신문(합정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2	민주조선(합정본)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3	인민들속으로 112	리광남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다. 기증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북한 통일문제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도서 17권이 새롭게 기증되었다.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2015-2024 한국인의 대북·통일 인식 분석	정상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2	2015-2025 한국인의 대미 인식 분석	정상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3	2030년, 남북은 왜 만나야 하는가? : 통일보다 더 큰 통합을 위하여	김수한	바른박스	2025
4	AI시대 한반도 미래 전략	류현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5	격동의 전환기,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이기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6	동북아지역 질서전환과 한중협력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7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 평화, 발전, 인권	댄 가즌	통일부	2025
8	영토의 주인 : 독도-dokdo-island in Korea	윤미경	노아출판사	2025
9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통일' 화두 : 盡人事待天命	홍양호	선인	2025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독해	유재석	선인	2025
11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통해 본 북한의 대러 및 대중 관계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2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국과 한일관계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3	출범 20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진단	반길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4	통신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태와 주요국의 공세적 사이버 안보 정책 : 현황과 과제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5	트럼프 2기 행정부와 2025년 헤이그 NATO 정상회의	전혜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6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한국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17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	민정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4. 예정사항

라.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12~2026.1월 중 개방서가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86권, 도서 나눔 77권

마. 노동신문 일반자료 분류·제공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제공되던 「노동신문」이 정부정책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과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반자료로 재분류되었다. 이번 분류 변경에 따라 「노동신문」은 자유로운 열람 및 복사 이용이 가능하다.

4. 예정사항

가. IFES 연구보고서 발간

1) AI가 핵 억지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 이병철

나. 한국과 국제정치 42-1호 중간발표회 (2026. 2. 2.)

○ 일시: 2026년 2월 2일 10:00~16:00

○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 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